육체편향을 십자가지향으로 뚫자

(시편 88:1~18)

1.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2.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3.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4.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5.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6.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육체편향을 십자가지향으로 뚫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육체편향을 십자가지향으로 뚫자'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편향성을 알아보는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손으로 대충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대답하게 합니다.

첫 그림은 남자의 얼굴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남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여자의 얼굴 그림이고, 세 번째는 할아버지의 얼굴 그림, 네 번째는 풍성한 파마를 한 할머니의 얼굴입니다. 마지막에는 매부리코에 안경을 쓴 대머리 아저씨의 얼굴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으로 대충 그린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닭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닭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토끼, 개, 고양이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쥐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서의 마지막이었던 매부리코에 안경을 쓴 대머리 아저씨와 두 번째 순서의 마지막이었던 쥐 그림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그림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그림이 사람 순서에 섞여있을 때에는 매부리코에 안경을 쓴 대머리 아저씨였는데, 동물 순서에 섞이자 안경이 쥐의 귀로 보였고 매부리코는 쥐의 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턱과 입은 쥐의 앞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쥐의 몸통부분이 대머리 아저씨의 얼굴 전체의 모습인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첫 순서에서는 분명히 매부리코에 안경을 쓴 대머리 아저씨

라고 확신했고, 두 번째 순서에서는 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그 모습은 대머리 아저씨도 될 수 있고 쥐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무엇인가에 각인이 되고 나면 그 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각인이 실제로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심리학 용어로는 확증편향(確證偏向)이라고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서 필요한 것들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봅니다. 면접을 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같은 통계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오전 면접에서의 합격자가 오후 면접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의 장점을 살펴봅니다. 그러다 오전 면접이 끝날 때쯤이면 이미 면접관들의 머리에는 오전 지원자들의 장점이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오후 면접에는 이미 면접관들의 머릿속에는 오전 면접자들의 장점만을 가진 슈퍼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슈퍼맨을 기준하기 때문에 오후 면접자들은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죽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죽겠다고 느끼는 순간 확증편향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마치 앞서 보았던 쥐의 그림과 같습니다. 쥐 그림을 매부리코에 안경을 쓴 대머리 아저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위험한지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음이 실제로는 안심할 일이라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현재 나와 가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상황이나 체질과 경향을 살펴보면 돈이 없다는 사실이 훨씬 더 유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실을 무조건 쥐로 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반복되면 우리는 한 번도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말로 웃어야 될 순간에 웃지 못하고, 정말로 슬퍼해야 될 순간에 슬퍼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에게 속으며 평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편향은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역사편향, 우편향, 좌편향이 자주 언급되지만 영적인 편향은 단순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넘어섭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삶을 왜곡함으로서 진짜 삶을 걷어차 버리고 가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이남석 씨가 "편향 :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생각의 함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101가지의 편향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삶의 편향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애피타이저의 값이 비싸면 실제로 메인디시가 비싼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집니다. 국가에서 한 때는 버려졌던 정책이 어느

순간 나라의 존망을 가늠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것 까지도 일종의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은 101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100가지이든 200가지이든 모든 편향은 한 가지 샘에서 시작된 물줄기입니다.

그 한 가지 샘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모든 편향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육체편향입니다. 이 육체편향을 끊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웃어야 할 때에 웃고 울어야 할 때에 울고 화내야 할 때에는 화내고 기뻐해야 할 때에는 기뻐하며 걱정해야 할 때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 받은 자의 삶이고 복지의 삶이며 회복된 에덴의 삶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은 편향이 끊어진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편향의 원천이 되는 육체편향을 끊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향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편향(偏向)은 곧 사로잡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배경지식이나 사실이 각인되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향(志向)은 의도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변의 기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육체편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 때에 편향된 사고로 이런저런 판단을 하기 전에 우선 십자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돈 없는 현실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십자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지향은 곧 하늘지향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지향성을 인간이 가진 기본 의식으로서의 존재형식으로 봅니다. 간단히 말해 의식은 항상 무엇인가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답을 압니다. 의식이 항상 무엇인가를 향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은 하나님 크기로 지어진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기인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함은 곧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었으니 갈 곳은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향하고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돈이 없든지 병이 들었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든지 가장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포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편향을 끊고 십자가지향이 바로 복지의 삶이고 에덴의 기초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복지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는 명예나

지위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삶과 기쁨과 만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명이 필요하다면 주어질 것이고 아니라면 주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르안놋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할랏르안놋’은 질병이나 고통 중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병중에 고통 받는 자를 위하여 연주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인은 불치병에 걸려 죽음이 임하였든지 그에 준하는 심각한 환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는 많은 비탄시들 중에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탄시들은 처음에 고통을 호소하고 괴로움으로 절규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확신합니다. 현재는 아직 고통 중에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해서 고통을 벗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확신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취신앙(先取信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마지막 절까지도 선취신앙에 의한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지 않고 괴로움의 호소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면이 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망설임을 갖게 합니다.
이 시의 내용 자체를 복음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는 동안에 질병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몸에 말뚝이 박힌 것과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육체편향 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로부터 돌고 나오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육체의 고통에 어떤 절대 값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통조차도 심리적 상태에 의해 상대적으로 변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똑같은 육체의 고통이라도 심리상태가 그 크기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 중에 상처를 입었을 때 전쟁터에 있는 의료막사에서 치료를 받을 때와 후방으로 이송해서 치료할 때와는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의료막사에서 치료할 때에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반대로 완전히 후방으로 이동하여 전쟁에서 벗어난 곳에서 심리상태를 안정시켜서 치료를 하면 훨씬 적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극단적인 고통을 이상하리만치 쉽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고 차꼬에 채워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극단적인 환란과 고통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 육체편향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본 시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주안점은 1절과 9절과 13절에서 반복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엄청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불치병인지 상황적 고통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큰 고통이 없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 고통을 없애 주세요. /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독하리만치 응답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시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감정을 살펴보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느낌에 있어서 시인은 이미 육체편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101가지의 편향도 하나의 육체편향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육체의 죽음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육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 두려움의 원천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편향 된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비어있는 상태를 채울 것이 없다고 여겨지면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육체편향 된 마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두려움의 원인을 육체의 죽음과 연관 짓습니다. 마음에 육체가 각인되어 있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음이 비어 있음으로서 생겨난 두려움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마음이 채워질 수만 있다면 육체의 죽음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느꼈던 기쁨을 느낄 수만 있으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빨리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육체편향을 벗지 못하는 한 두려움을 육체의 죽음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고 이런 근원적 오해는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을지라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머리 둘 곳이 없게 하시더니 나까지도 머리 둘 곳이 없게 하시려는 이유가, 혹시 주님께서 하신 전도사역이라도 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궁금증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길거리로 나앉을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 편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전 면접자보다 오후 면접자가 불리함을 겪는다는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신앙적으로 짚어보자면 면접관들이 육체 편향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의존합니다. 육체를 통해서만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고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육체와 연관된 가치들을 좋게 여깁니다. 그렇기에 오전에 각인된 조건들을

바탕으로 오후 면접 지원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해 근원적으로 풀어봅니다. 육체가 만나는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육체가 없어지면 마음을 채울 수 없게 되기에 육체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마음 채움을 육체와 연관시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마음 채움은 육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래 에덴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육체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 이후에 육체로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들을 통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원죄로 불리는 인간이 가진 근원적 육체편향성입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육체편향성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육체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평생 애를 쓰기 때문에 육체를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육체편향성을 중단하라는 것이고 육체를 의지하거나 육체에 매어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육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병을 겪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늙으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게 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육체편향성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고 아직도 육체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육체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 용어에 “플립플롭 블라인딩(flipflop blind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주의해서 보는 동안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육체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볼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육체를 통해 만나는 것들만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상황만을 보고, 병 걸린 사람은 병 걸린 상황만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제 설교에서 이러한 태도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배달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은 저절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지향해야만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나의 뜻을 향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눈을 감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향할 때에만 육체편향이 끊어집니다. 육체편향을 끊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노숙자일지라도 십자가지향을 통하여 하나님지향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가짐으로 행복한 노숙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벌이 하나님을 지향하면 행복한 재벌이 됩니다. 반대로 재벌일지라도 육체편향이 계속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노숙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혹 신앙이 없으면서 노숙자생활이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것 또한 육체편향에서 비롯된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지고 있던 짐이 워낙 많았기에 그것들이 다 없어지자 잠시나마 편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지향을 통하여 육체편향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지향하면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 속에서 나타나는 판단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일 가능성이 십중팔구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쁠 때에 나타나는 세상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다만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오류가 있다는 것만은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바뀔 때에 삶은 복지가 되고 에덴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속이는 육체편향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십자가지향성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지향성에 이어지는 하나님지향성을 고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을 복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생활화로 십자가지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체편향성을 근절시키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복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